

## 제주올레에서의 자연과의 교감과 편익인지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mmunication with Nature and Perception of Benefits  
on Place Attachment at Jeju Olle

이보미\* · 오문향\*\* · 김자현\*\*\*

Lee, Bo-Mi · Oh, Mun-Hyang · Kim, Ja-Hyun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know about the impacts of communication with nature and perception of benefits on place attachment at Jeju olle.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differences on communication with nature, perception of benefits, and place attachment between resident visitors and non-resident visitors. The survey was conducted twice (April 24, 2010 and May 1-9, 2010) at course 14-1 and 7 in Jeju Olle, collect 339 copies, and used 298 for analyzing.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of all, 3 specific factors (consentience with nature, new experience and learning, health promotion) affect place identity. Second, 2 specific factors (consentience with nature, health promotion) affect place dependence. Finally,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 health promotion, improvement of social bond, and place dependence between resident visitors and non-resident visitors. Resident visitors show high perceptions on those factors than non-resident visitors. This study could be useful for developing events, festivals, and experience programs of Jeju Olle. Also, marketing plan for both residents and non-resident visitors could be established by using preliminary data.*

**핵심용어(Key words) :** 편익(Benefits),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장소의미(Sense of place), 제주올레(Jeju Olle)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e-mail: bmlee25@naver.com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e-mail: sechsv@hanmail.net

\*\*\* 서영대학 항공서비스과 전임강사. e-mail: jahyun7310@daum.net

## I. 서 론

현재 국내에는 100여개 넘는 도보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다. 도보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일반 단체관광의 여행패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김인신·조민호, 2011). 실제로 2010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 757만 8301명 가운데 올레탐방객수가 45만 5천명으로 추산되며, 총지출액은 1795억원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72만명, 67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제주환경일보, 2010). 이는 사람들이 제주올레라는 특정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길을 여행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라 볼 수 있다.

이렇듯 관광목적지로서 도보관광지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에 수행되어 온 도보관광지에 대한 연구는 관광객과 장소와의 관계나 의미 등 보다 본질적인 관광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었다기보다는 안내체계, 관광동기, 관광지 이미지 등(정철·박태영·노경국, 2010; 박영아·현용호, 2009) 관광현상이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장소와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장소애착의 개념을 '장소의 의미(sense of place)'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Kyle, Graefe, & Manning, 2005). 즉, 한 개인이 장소에 가지는 가치부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소에 부여하는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까지 장소애착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장소와 사람간의 관계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장소애착의 개념을 국외의 연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Bricker & Kerstetter, 2000; Moore & Scott, 2003; Oh & Ditton, 2006)하고 있는 반면, 국내연구는 주로 공급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강신겸·최승담, 2002; 고동완·김현정, 2003). 그러나 관광현상을 장소이용자가 아닌 장소공급자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장소애착을 갖는 주체인 관광객이 느끼는 진정한 '장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김사현,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올레를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올레라는 장소에서 느낀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경험의 과정들이 장소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제주올레를 방문한 제주도민과 타지역민을 구분하여 장소공급자이자 이용자인 제주도민과 단순 장소이용자인 타지역민 간의 제주올

레에서 느끼는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의 차원을 규명하고 자연과의 교감과 장소애착, 편익과 장소애착간의 영향관계를 증명하여 장소애착이론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민과 타지역민간 관광경험 후 지각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아 기존 이론과의 차이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실무적으로는 제주올레 관광객들이 제주올레에 장소애착을 갖게 만드는 요인들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제주올레의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개발 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민과 타지역민이 제주올레에서 느끼는 자연과의 교감, 추구하는 편익, 장소애착의 정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도내 마케팅과 전국단위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도보관광의 유행과 제주올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인류의 존영을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객들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파괴를 지양하는 관광지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전명숙, 2010). 특히, 생태관광, 트래킹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을 그대로 즐기고자 하는 견기 여행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도보관광의 대세를 이끌고 있는 제주올레는 2007년 9월 첫 번째 코스를 개장한 후, 5년이 지난 2012년 9월 21코스의 개장을 앞두고 있어, 제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총 430km에 달하는 트래킹 코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올레'는 제주 방언으로 '집 대문에서 마을길까지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 말로써, 제주올레는 제주의 올레를 재정비한 것일 뿐 대부분 그 전부터 있던 길이다.

제주올레는 한 코스 당 평균 15km로 되어 있어, 5-6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견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관광은 본래 대중적인 관광행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느린 여행에 대한 갈증, 자아성찰의 공간으로서의 관광지에 대한 욕구, '제주올레'라는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 노력, 언론의 담론화 등이 제주올레를 유명관광명소로 만들어주었다(이영운, 2010). 그 결과, 개장 당시 3천명이던 체험객이 2010년 60여만명, 약 500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누렸다(강연호, 2011). 최근에

는 해외(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지)에까지 제주올레를 만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호클리벨리의 브루스트레일이 제주올레 2구간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호클리벨리 입구에 안내판과 함께 제주올레의 표식인 조랑말 모양의 간세를 세웠고 2011년 11월에는 ‘우정의 길’ 행사도 개최하였다(동아일보, 2011).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제주올레의 명성을 넓혀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 2. 자연림에서 느끼는 자연과의 교감과 장소애착

자연림(wilderness)은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산림을 말한다(이보미, 2010). Drive, Nash, & Hass(1987)는 자연림을 특정한 자연 자체와 같은 대상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감정과 정서의 축적이라 칭하였다.

자연과의 교감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적 틀은 Thoreau(1995)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자연림에서의 경험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원초적인 느낌(primitiveness), 몰입감(timelessness), 고독감(solitude), 공존감(oneness), 겸손함(humility), 그리고 관심(care)의 6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 Borrie & Roggenbuck(2001)의 연구에서는 Thoreau(1995)이 제시한 자연림 경험에서 느끼는 6가지 범주의 감정들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가장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Okefenokee National Wildlife Refuge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경험의 내용을 측정하는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몰입감, 관심의 감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독감은 중간 정도, 공존감이나 원초적인 느낌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장소애착은 사람과 특정 장소 사이의 애정 어린 결합 혹은 연결(Hidalgo & Hernandez, 2001; Shumaker & Taylor, 1983), 또는 장소에 대한 감정적인 연관(Hummon, 1992)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장소애착이란 용어는 커뮤니티애착(Kasarda & Janowitz, 1974), 장소애착(Gerson, Stueve, & Fischer, 1977), 장소정체성(Proshansky, 1978), 장소의존성(Stokols & Shumaker, 1981), 장소의 의미(Hummon, 1992; Farnum, Hall, & Kruger, 2005) 등의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각 용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장소애착은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의 적어도 두 개의 차원으로 나뉜다고 하였다(Proshansky, Fabian, & Kaminoff, 1983; Williams & Roggenbuck, 1989).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은 한 개인이 특정한

장소와의 관계를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Stokols & Shumaker(1981)가 처음 주장한 용어이다. 이들은 장소에 대한 지속성, 빈도 등이 장소의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선행요건이지만, 장소가 개인의 특별한 욕구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질적인 양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과거의 정서적 경험이 장소의존성의 강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은 특정 장소에서 인간과 그 장소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정의된다(Stedman, 2002).

자연림에서의 자연과의 교감은 자연에 대한 감정과 정서의 축적(Drive *et al.*, 1987)으로서 원초적인 느낌, 몰입감, 고독감, 공존감, 겸손함, 그리고 관심 등의 감정을 유발한다(Thoreau, 1995; Borrie & Roggenbuck, 2001). 특정장소에 대한 정서적 경험은 장소의존성의 강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장소에서 인간과 그 장소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작용의 과정에 의해 장소정체성이 형성된다(Stedman, 2002). 따라서 자연림에서의 자연과의 교감에 의해 느끼는 감정을 통해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등 장소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자연림이 가져다주는 편익과 장소애착

편익(benefits)의 사전적 의미는 '편리하고 유익함'이다. 관광의 측면에서 보면 '관광경험의 기회' 혹은 '능력이 효과적으로 증진되거나 향상된 상태,' 혹은 '관광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에 대한 관광객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Driver, 1990; Hunt, 1977). 예를 들어, 개인이 관광경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면 그 사람의 심리상태가 편익이며, 스트레스 해소를 인해 생산성이 높아졌다면 이는 관광경험이 가져다 준 편익인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관광이 가져다주는 육체적·생리적 편익(Ulrich, Dimberg & Driver, 1990), 심리적 편익(Driver *et al.*, 1987), 교육적 편익(Roggenbuck, Loomis, & Dagostino, 1990), 정신적 편익(McDonald & Schreyer, 1991)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이보미, 2010), Anderson, Stains, Schneider, & Leahy(2008)은 편익을 건강,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 성취의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Kaplan, Kaplan, & Ryan(1998), Ulich *et al.*(1990) 등에 의하면 자연과의 상호작용 경험은 정신적 피로 회복을 용이하게 하며, 사람의 기분을 긍정적인 상태로 유도함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Kaplan &

Talbot(1983)는 환자와 사무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작은 창을 통해 보이는 자연환경도 인간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신체조건 향상의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Iwasaki, & Mannell(2000)의 연구에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당뇨병, 장애인, 동성애자들과 같이 사회적 교류가 적은 사람들의 경우, 정신적·사회적·문화적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여가활동의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 편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관광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에 대한 관광객의 주관적인 평가인 편익은 인간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장소에서 경험한 정서적 경험 및 상호작용 과정이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등 장소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림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서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 4. 지역주민과 타지역주민의 자연과의 교감, 편익지각, 장소애착

지역주민과 타지역주민 간 자연과의 교감, 편익지각, 장소애착 등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였다. Anderson *et al.*(2008)은 국립공원을 방문한 근거리, 원거리 거주자 경험의 편익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연을 즐김, 건강,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 성취감 등의 편익요인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연을 즐김, 정신 및 육체건강, 사회적 상호작용의 세 요인에 대해서는 원거리와 근거리 방문자 모두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독, 학습 편익에 대해서는 근거리 방문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요인들에 걸쳐 편익 경험의 중요성을 근거리 방문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Hernandez, Hidalgo, Salazar-Laplace, & Hess(2007)의 연구에서는 비거주자의 경우 장소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장소애착이 발전하며, 섬에 대한 장소정체성, 장소애착이 도시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Moore & Graefe(1994)는 도보를 위한 여가환경에서 장소애착을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으로 구분하여 애착정도를 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과 장소의 근접성, 애착기간, 빈도가 장소애착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소의존성은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되는 반면 장소의존성보다 감정적인 장소정체성은 긴 시간이 요구되는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Hidalgo & Hernandez(2001)의 연구에서는 스페인 산타크루즈에 거주민들

을 대상으로 지리적, 사회적, 물리적 요소 가운데 장소애착에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무엇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장소에 대한 애착심은 사회적 애착이 물리적 애착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리적 요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한 장소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장소에 대한 편익지각은 근거리 거주민들이 더 높은 것(Anderson, Stains, Schneider, & Leahy, 2008)으로 나타났으며, 장소애착에 대해서는 장소의 근접성이 장소애착을 높인다는 연구(Moore & Graefe, 1994)와 지리적 요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연구(Hidalgo & Hernandez, 2001) 등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된 연구들이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장소에 대한 감정, 편익지각, 장소애착은 지역주민과 타지역주민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엇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 III. 연구 설계

#### 1. 연구모형과 가설

기존 연구에서 자연과의 교감(Thoreau, 1995)과 관광이 가져다주는 육체적·생리적 편익, 심리적 편익, 교육적 편익, 정신적 편익(Ulrich *et al.*, 1990; Driver *et al.*, 1987; Roggenbuck *et al.*, 1990; McDonald & Schreyer, 1991) 등은 사람의 감정 상태 및 신체 컨디션을 변화시킨다(Kaplan *et al.*, 1998; Ulich *et al.*, 1990; Kaplan & Talbot, 1983). 또한 특정장소에 대한 정서적 경험은 장소의존성의 강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장소에서 인간과 그 장소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작용의 과정에 의해 장소정체성이 형성된다(Stedman, 2002). 따라서 자연림에서의 자연과의 교감과 편익지각은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등 장소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다음의 가설 1, 2를 설정하였다.

[가설 1] 제주올레에서의 자연과의 교감은 장소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제주올레에서 지각한 편익은 장소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관광지역주민과 타지역민 간에는 관광경험에서 인지한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Anderson *et al.*, 2008; Moore & Graefe, 1994), 제주지역주민과 타지역민 간에도 제주올레 경험에서 인지한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에 서로 차이를 보임을 예상해 볼 수 있어 다음의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제주올레에서의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에 대한 인식은 제주지역민과 타지역민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 2. 조사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올레 방문객들의 자연과의 교감의 정도, 제주올레 이용을 통해 얻는 편익, 장소애착 사이의 인과관계와 제주지역주민과 타지역민 간 자연과의 교감의 정도, 편익, 장소애착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제주올레를 방문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문항은 제주올레를 방문한 한국인 성인남녀가 느끼는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의 정도를 알고자 선행연구(Borrie & Roggenbuck, 2001)에서 선호된 자연과의 교감을 종합하고, 제주올레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19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편익에 관한 문항을 추출하고자 Anderson *et al.*(2008) 등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장소애착 조사를 위해서는 선행연구(Moore & Graefe, 1994)를 토대로 총 8문항을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를 관광학 박사 2인에게 의뢰하여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쳤으며, 최종적인 내용타당도를 해당분야 교수 3인에게 확인받았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측정변수	측정문항 수	출처	척도
자연과의 교감	일치감	11문항	Borrie & Roggenbuck(2001)	리커트 7점 척도
	무한함	3문항		
	고독함	3문항		
	관심	2문항		
	편익	13문항	Anderson <i>et al.</i> (2008)	
	장소애착	8문항	Moore & Graefe(1994)	



조사기간은 2010년 4월 24일(1차 조사), 2010년 5월 1일-9일(2차 조사, 9일간)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 장소는 제주올레 14-1코스과 7코스를 각각 선정하였다. 조사 당시 제주올레는 총 19코스였으나 14-1코스과 7코스를 선정한 이유는 제주지역주민과 타지역민을 고루 설문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주올레 개장행사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14-1코스과 지역주민보다는 타지역민이 선호하는 7코스를 각각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14-1코스에서는 제주올레 개장행사를 위한 버스에서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설문을 받고, '오설록 차 전시관'의 잔디밭에서 점심도시락을 먹는 중에 설문을 받았다. 14-1코스에서 이루어진 1차 조사에서 회수한 유효표본은 124부에 해당한다. 둘째, 7코스에서 월평포구에서의 관광시간에 시간 및 공간적으로 설문지 작성에 가장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월평포구에서 설문을 받았다. 2차 조사에서 회수한 유효 표본은 174부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앞세워 설문지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스스로 설문지에 관심을 보이거나 호응을 보이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충실하게 응답해 준 방문객들에게 설문지 작성 후 해당 장소에서 조사자가 직접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 339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표본 298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모집단의 규정, 조사 및 분석방법에 대한 내용은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2> 모집단의 규정, 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 대상	-제주올레을 방문한 성인남녀(한국인)
조사 기간	-1차 조사: 2010년 4월 24일(토요일), 2차 조사: 2010년 5월 1일-9일(9일간)
조사 장소	-제주올레 14-1코스(1차 조사)와 7코스(2차 조사)
자료 수집	-개별면접을 통한 설문조사 -1차 조사: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방문자에게 제공한 버스(약 40분 소요, 왕복 5000원) 안에서 방문 전, 방문 후의 설문지를 작성, '오설록 차 전시관'의 잔디밭에서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 방문 중 설문지 작성 -2차 조사: 7코스 월평포구에서 설문지 작성 -질적인 설문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에 스스로 호응을 보이는 방문객들 위주로 설문지 작성, 작성 후 문화상품권 지급
유효 표본	-총 배포 설문지 수 : 400부(339부 회수) -유효표본 : 298부
분석 방법	-활용 프로그램: SPSS 15.0 -표본의 일반적 특징: 빈도분석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간의 인과관계 검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제주도민과 타지역주민간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의 차이: 독립표본 t-test

###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방문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제주도민과 타지역주민간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 IV. 실증 분석

###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표본의 일반적 특성(n=297)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6	45.8	동반 유형	가족	106	35.7
	여성	161	54.2		친구	119	40.1
연령	20-29세	58	19.5	동반자 수	혼자	34	11.4
	30-39세	55	18.5		기타	38	12.8
	40-49세	96	32.3		0	34	11.4
	50-59세	76	25.6		1	77	25.9
결혼 여부	60-69세	12	4.0	2	38	12.8	
	미혼	104	35.0	3	30	10.1	
	기혼	191	64.3	4	33	11.1	
학력	기타	2	0.7	거주지	5	18	6.1
	고등학교 졸업	80	26.9		6	67	22.6
	대학재학	17	5.7		제주도	102	34.3
	대학교 졸업	176	59.3		타지역	195	65.6
직업	대학원 졸업	24	8.1	2005년 이후 방문횟수	1회	164	55.2
	학생	24	8.1		2회	39	13.1
	회사원	62	20.9		3회	30	10.1
	공무원	42	14.1		4회	15	5.1
	주부	56	18.9		5회	13	4.4
	전문직	48	16.2		6회	9	3.0
	판매/서비스/운수업	34	11.4		7회 이상	27	9.1
기타	31	10.4					

주 : 전체 표본수와 최종 빈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의 결과임.

## 2. 측정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설문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의 차원을 규명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과의 교감에 대해 총 19개 문항 가운데 3개를 제외한 16개 문항으로 총 3개의 요인이 생성되었다. 편익에 대해서는 13개 문항 가운데 2개 문항이 제외되어 11개 문항, 총 3개 요인으로 요약되었으며, 장소애착의 경우, 8개 문항, 총 2개 요인으로 축소되었다.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판단하고자 상관계수 행렬이 영행렬인지에 대한 Bartlett의 구형검사(Bartlett test of sphericity)와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관계수행렬이 영행렬이라는 가설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되었으며, KMO값이 각각 66.204%, 73.575%, 83.106%로 요인분석 가능(0.5 이상) 혹은 적합(0.7 이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연과의 교감’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자연과의 일치감	-자연의 모든 것에 겸허함을 느낌	.760	5.408	33.801	.913
	-삶이 소박함을 느낌	.727			
	-자연의 일부임을 느낌	.727			
	-자연의 창조물에 경외감을 느낌	.725			
	-활기찬 지구를 느낌	.724			
	-자연과 특별한 친밀감을 느낌	.718			
	-삶이 단순함을 느낌	.716			
	-개척자처럼 살고 있는 기분	.693			
	-자연에 몰입됨을 느낌	.680			
	-과거와 정신적 교류를 하고 있다고 느낌	.665			
자연의 포용성	-이 장소가 소중한다고 느낌	.875	3.248	20.301	.871
	-고요함을 느낌	.840			
	-평화로움을 느낌	.759			
	-올레에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겠다고 느낌	.719			
몰입감	-홀려가는 시간에 대해 걱정	.945	1.936	12.102	.919
	-몇 시인지 걱정	.945			

주 :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87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3047.121 (df = 120, Sig. = .000)

충분산설명력 : 66.204%

〈표 5〉 ‘편익’ 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새로운 경험과 배움	-올레의 문화 관련 역사 배워	.805	3.586	32.601	.884
	-올레의 자연환경 관련 역사 배워	.774			
	-색다른 경험	.752			
	-도전을 경험	.738			
	-능력과 기술 시험의 기회	.713			
건강 증진	-설렘과 흥분	.713	2.694	24.488	.887
	-육체적 건강증진	.861			
	-신체적 긴장완화	.855			
사회적 유대감 증진	-정신적 건강증진	.812	1.813	16.486	.788
	-동반한 사람들과 유대 증진	.840			
	-관심사 같은 이들과 함께	.821			

주 :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83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2064.568(df=55, Sig. = .000)  
 충분산설명력: 73.575%

〈표 6〉 ‘장소애착’ 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장소 정체성	-올레 경험으로 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됨	.866	3.336	41.701	.927
	-올레와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됨	.853			
	-올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함	.853			
	-올레는 나의 일부와도 같은 곳	.796			
장소 의존성	-올레는 최상의 관광장소	.890	3.312	41.404	.932
	-어떤 관광지도 올레와 비교 불가함	.882			
	-어떤 관광지도 올레와 맞바꿀 수 없음	.852			
	-올레는 어떤 관광지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줌	.748			

주 :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90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2177.786(df=28, Sig. = .000)  
 충분산설명력: 83.106%

요인별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7 이상(Nunnally, 1978)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요인의 명칭은 적재된 측정항목의 특성과 선행연구의 요인명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자연과의 교감의 3개 요인은 각각 ‘자연과의 일치감,’ ‘자연의 포용성,’ ‘몰입감’으로 명명하였고, 편익의 3개 요인은 각각 ‘새로운 경험과 배움,’ ‘건강증진,’ ‘사회적 유대감 증진’으로 명명하였으며, 장소애착의 2개 요인은 ‘장소정체성,’ ‘장소 의존성’으로 명명하였다.

### 3. 제주올레 이용객의 자연과의 교감, 편익이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구성개념들 간 관계가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변수간의 관계의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한 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0.66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VIF값을 도출한 결과, 1에서 2사이의 분포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과의 느낌, 편익이 장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모형은  $F=39.631(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추정된 모형이 유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수정된  $R^2$ 가 44.2%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 장소정체성을 44.2%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자연과의 일치감, 새로운 경험과 배움, 건강증진의 3개 요인이 장소정체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과의 일치감, 새로운 경험과 배움, 건강증진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제주올레에 대한 장소정체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표 7> 상관관계 분석

	자연과의 일치감	자연의 포용성	자연의 무한함	새로운 경험과 배움	건강증진	사회적 유대감 증진	장소 정체성	장소 의존성
자연과의 일치감	1							
자연의 포용성	.591**	1						
몰입감	.075	.135*	1					
새로운 경험과 배움	.639**	.461**	-.010	1				
건강증진	.561**	.557**	.120*	.512**	1			
사회적 유대감 증진	.432**	.328**	.021	.431**	.426**	1		
장소정체성	.651**	.430**	.068	.519**	.477**	.322**	1	
장소의존성	.585**	.458**	.134*	.460**	.548**	.311**	.693**	1

주: \*은  $p<0.01$ , \*\*은  $p<0.05$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자연과의 느낌, 편익이 장소의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모형은  $F=34.158(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추정된 모형이 유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수정된  $R^2$ 는 40.4%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 장소의존성을 40.4%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자연과의 일치감, 건강증진의 2개 요인이 장소의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과의 일치감, 건강증진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제주올레에 대한 장소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표 8〉 장소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18	.478		.278	.781
장소 정체성	자연과의 일치감	.620	.082	.488	7.542	.000***
	자연의 포용성	.000	.084	.000	-.002	.999
	몰입감	.014	.036	.018	.395	.693
	새로운 경험과 배움	.151	.064	.141	2.371	.018*
	건강증진	.186	.082	.132	2.267	.024*
	사회적 유대감 증진	-.003	.059	-.002	-.048	.961
R <sup>2</sup> = .453, Adjusted R <sup>2</sup> = .442, df=6, F=39.631(p<.000)						

주: \*p<0.05,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9〉 장소의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19	.481		-.456	.649
장소의존성	자연과의 일치감	.425	.083	.343	5.140	.000***
	자연의 포용성	.088	.085	.062	1.035	.302
	몰입감	.055	.036	.069	1.502	.134
	새로운 경험과 배움	.073	.064	.071	1.148	.252
	건강증진	.379	.083	.276	4.594	.000***
	사회적 유대감 증진	-.008	.059	-.007	-.140	.889
R <sup>2</sup> = .417, Adjusted R <sup>2</sup> = .404, df=6, F=34.158(p<.000)						

주: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 4. 제주도민과 타지역민 간 제주올레 경험 후 지각의 차이

제주도민과 타지역민 간 제주올레 경험 후 지각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제주도민은 제주올레의 건강증진 편익요인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타지역민은 제주올레가 지닌 자연의 포용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제주도민은 건강증진>자연의 포용성>사회적 유대감 증진>장소의존성>몰입감>장소정체성>자연과의 일치감>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순으로 높은 지각 수준을 보였으며, 타지역민들은 자연의 포용성>건강증진>사회적 유대감 증

진>몰입감>장소의존성)자연과의 일치감)새로운 경험과 배움)장소정체성의 순서로 높은 지각 수준을 나타냈다.

최병길·김경호(2007)에 따르면,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방문목적을 살펴본 결과, 첫 방문 시에는 단순 자연경관 감상이 목적이었으나, 재방문객들은 자연중심의 레저/스포츠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타지역민들의 지각수준이 자연의 포용성과 건강증진이 1, 2위로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과 타지역민간 제주올레 경험 후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에는 건강증진, 사회적 유대감 증진, 장소의존성 요인으로서 3개 요인 모두에 대해 제주도민이 타지역민에 비해 높은 지각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소에 대한 편익지각이 근거리 거주민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Anderson et al.(2008)의 연구와 장소에 근접할수록 장소애착을 높인다는 Moore & Graefe (1994)의 연구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표 10> 제주도민과 타지역민 간 제주올레 경험 후 지각 차이 분석

	제주올레의 경험 후 지각	제주도민(n=102)		타지역민(n=195)		t-value
		평균(표준편차)	순위	평균(표준편차)	순위	
자연과의 교감	자연과의 일치감	5.47(0.96)	7	5.38(0.97)	6	-0.724
	자연의 포용성	6.22(0.71)	2	6.07(0.89)	1	-1.457
	몰입감	5.82(1.37)	5	5.60(1.55)	4	-1.303
편익	새로운 경험과 배움	5.20(1.25)	8	5.35(1.09)	7	1.063
	건강증진	6.38(0.78)	1	6.03(0.89)	2	-3.326***
	사회적 유대감 증진	6.04(0.93)	3	5.69(1.09)	3	-2.937**
장소 애착	장소정체성	5.55(1.22)	6	5.29(1.21)	8	-1.775
	장소의존성	5.86(1.03)	4	5.46(1.24)	5	-2.922**

주: \*\*p<0.01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 5.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검증 결과에 따르면, 자연과의 일치감, 새로운 경험과 배움, 건강증진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제주올레에 대한 장소정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과의 일치감, 건강증진의 2개 요인이 장소의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의 포용성, 몰입감, 사회적 유대감 증진이 제주올레에 대한 장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자연의 포용성, 몰입감, 새로운 경험과 배움, 사회적 유대감 증진이 제주올레에 대

한 장소의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제주도민과 타지역민 간 제주올레 경험 후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에는 건강증진, 사회적 유대감 증진, 장소의존성 요인으로서 유의한 요인 모두 제주도민이 타지역민에 비해 높은 지각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자연과의 교감의 모든 요인, 편익 내 새로운 경험과 배움, 장소애착의 장소정체성은 제주도민과 타지역민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검증 결과, 가설 1, 2, 3은 모두 부분채택 되었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주올레 방문객들의 자연과의 교감의 정도, 제주올레 이용을 통해 얻는 편익의 지각에 따라 장소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제주지역 거주민과 타지역민 간의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총 2회(2010년 4월 24일, 1차 조사; 2010년 5월 1일-9일, 2차 조사)에 걸쳐 제주올레 14-1코스와 7코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400부를 배포, 339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표본 298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자연과의 일치감, 새로운 경험과 배움, 건강증진의 3개 요인이 장소정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연과의 일치감, 건강증진의 2개 요인이 장소의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도민과 타지역민 간 제주올레 경험 후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에는 건강증진, 사회적 유대감 증진, 장소의존성 요인으로서 3개 요인 모두에 대해 제주도민이 타지역민에 비해 높은 지각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과의 교감, 편익, 장소애착의 차원을 규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자연과의 교감은 원초적인 느낌, 몰입감, 고독감, 공존감, 겸손함, 그리고 관심 등의 6개 차원으로 나뉘었다(Thoreau, 1995; Borrie & Roggenbuck,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과의 일치감, 자연의 포용성, 몰입감의 3개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차원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6개 차원에서 3개 차원으로 그 활용 면에서 보다 간결한 차원이 도출되었다는 시사점이 있다. 편익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험과 배움,' '건강증진,' '사회적 유대감 증진'의 3개 요인으로 요약되었으며, 이는 Anderson *et al.* (2008)이 분류한 편익의 4가지 요인(건강,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 성취) 가운데 건강과 성취가 '건강증진'의 하나의 요인으로 요약된 결과로 보이며 선행연구결과를 재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소애착의 경우, 대다수의 선행연구결과(Proshansky *et al.*, 1983; Williams & Roggenbuck, 1989)와 마찬가지로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의 두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재차 증명하였다.

둘째, 자연과의 교감과 장소애착, 편익과 장소애착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자연림의 경험과 편익을 이해하고 이를 관광객이 해당 장소에 대해 장소애착을 갖게 만드는 것은 자연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림에서의 경험과 편익을 조사하는 것은 연구의 복잡성과 경제적 비용의 문제로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제주올레라는 자연림에서 자연과의 교감과 편익이 장소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소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들을 찾아내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셋째, 선행연구결과에서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던 거주민과 타지역 민간 관광경험 후 지각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해 Anderson *et al.* (2008)의 연구와 Moore & Graefe (1994)의 연구에서처럼 거주민이 타지역민보다 편익지각과 장소애착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이들의 연구 성과를 지지하는 결과물을 도출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넷째, 국내연구에서 주로 관광지 공급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한계점을 드러냈는데(강신겸·최승담, 2002; 고동완·김현정, 2003), 본 연구에서는 관광현상을 장소이용자와 장소공급자 모두를 아우르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장소애착의 주체인 관광객들이 느끼는 진정한 '장소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데 그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올레과 같은 도보관광객이 증가에 따른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방안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문화체육관광부, 2010)에 제주올레 관광객들이 제주올레에 장소애착을 갖게 만드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제주올레의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개발 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도출해냈다. 둘째, 또한 제주도민과 타지역민이 제주올레에서 느끼는 감정, 추구하는 편익, 장소애착의 정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도내 마케팅

과 전국단위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제주올레 관리자들은 타지역민의 장소애착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환경을 부각시키는데 힘쓰고, 신체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관련 이벤트, 체험활동을 부각하여 마케팅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한계점을 들자면, 제주올레의 모든 코스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코스마다 방문객에게 전달되는 느낌, 편익 등에 차이를 보일 수 있어 2개 코스만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조사시점이 계절상 봄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느끼는 자연과의 교감 및 편익을 정확히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신겸·최승담(2002). 관광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측정척도 개발. 『관광학연구』, 26(1), 103-117.
- 강연호(2011). 도시 올레길 : 걸어서 여행하는 이들을 위한 길, 제주올레. 『도시문제』, 46(509), 52-53.
- 고동완·김현정(2003).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학연구』, 27(3), 97-114.
- 김사현(2008). 관광학의 새로운 正體性을 찾아서: 懷古와 課題 『관광학연구』, 32(4), 11-33.
- 김인신·조민호(2011). 제주올레 관광지 속성, 도보관광객 편익, 그리고 지각된 가치 간 관계 분석: 수단-목적 사슬 이론 적용. 『관광연구논총』, 28(2), 127-154.
- 동아일보(2011). 캐나다에서도 '제주올레' 걷는다. 2011년 09월 15일자.
- 문화체육관광부(2010).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박영아·현용호(2009). 도보여행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7), 75-93.
- 이영윤(2010). 언론의 특정 지역공간 담론화에 대한 분석: "제주올레"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36(0), 301-331.
- 전명숙(2010). 슬로우 관광의 탐색적 고찰 : 제주올레투어 걷기여행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8(1), 109-123.
- 정철·박태영·노경국(2010). 제주올레관광객의 방문동기와 사전이미지의 관계. 『관광

학연구』, 34(4), 13-33.

제주환경일보(2010). 제주올레, 네이밍제도 도입하자. 2010년 12월 06일자.

최병길·김경호(2007). 제주관광에서 재방문객의 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1(3), 269-288.

Anderson, D. H., Stanis, S. A. W., Schneider, I. E., & Leahy, J. E.(2008). Proximate and Distant Visitors: Differences in Importance Ratings of Beneficial Experience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26(4), 47-65.

Borrie, W. T., & Roggenbuck, J. W.(2001). The dynamic, emergent, and multi-phasic nature of on-site wilderness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2), 202-228.

Bricker, K. S., & Kerstetter, D. L.(2000). Level of specialization and place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whitewater recreationists. *Leisure Sciences*, 22(4), 233-257.

Driver, B. L.(1990). Focusing research on the benefit of leisure: Special issue introdu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93-98.

Driver, B. L., Nash, R., & Hass, G. E.(1987). Wilderness benefits: A state of knowledge review. In R. C. Lucas(Ed.), *Proceedings, National Wilderness Research Conference: Issues, state-of-knowledge, future directions* (General Technical Report INT-220, pp. 294-319). Ogden, U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Intermountain Research Station.

Farnum, J., Hall, T., & Kruger, L.(2005). *Sense of place in natural resource recreation and tourism: An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research findings*. Seattl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Pacific Northwest Research Station.

Gerson, K., Stueve, C. A., & Fischer, C. S.(1977). Attachment to place. In C. S. Fischer, R. M. Jackson, C. A. Stueve, K. Gerson, L. Jones, M. Baldassare(Eds), *Networks and Places*, The Free Press, New York.

Hernandez, B., Hidalgo, M. C., Salazar-Laplace, M. E., & Hess, S.(2007). Place attachment and place identity in natives and non-nativ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7, 310-319.

Hidalgo, M. C., & Hernandez, B.(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273-381.

- Hummon, D. M.(1992). Community attachment: local sentiment and sense of place. In I. Altaman & S. Low (Eds), *Networks and Places*, The Free Press, New York.
- Hunt, H. K.(1977).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onsumer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Cambridge Mass: MSI, 459-460.
- Iwasaki, Y., & Mannell, R. C.(2000). Hierarchical dimensions of leisure stress coping. *Leisure Science*, 22, 163-181.
- Kaplan, R., Kaplan, S., & Ryan, R. L.(1998). *With people in mind: Design and management of everyday nature*. Washinton, D. C.: Island Press.
- Kaplan, S., & Talbot, J. F.(1983). Psychological benefits of a wilderness experience. In I. Altman, & J. F. Wohlwill (Ed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Vol. 6. Behavior and natural*, New York: 6Plenum Press.
- Kasarda, J. D., & Janowitz, M.(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28-339.
- Kyle, G. T., Graefe, A. R., & Manning, R.(2005). Testing the dimentionality of place attachment in recreation settings. *Environment and Behavior*, 37(2), 153-177.
- McDonald, B. L., & Schreyer, R.(1991). Spiritual benefits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ettings. In B. L. Driver, P. J. Brown & G. L. Peterson (Eds.) *Benefits of Leisure* (pp. 179-194).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 Moore, R. L., & Graefe, A. R.(1994). Attachments to recreation settings: The case of rail-trail users. *Leisure Sciences*, 16(1), 17-31.
- Moore, R. L., & Scott, D.(2003). Place attachment and context: Comparing a park and a trail within. *Forest Science*, 49, 877-884.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Oh, C. O., & Ditton, R. B.(2006). Using recreation specialization to understand multi-attribute management preferences. *Leisure Sciences*, 28, 369-384.
- Proshansky, H. M.(1978). The city and self-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10, 147-170.
- Proshansky, H. M., Fabian, A. K., & Kaminoff, R.(1983). Place-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 57-83.

- Roggenbuck, J. W., Loomis, R. J., & Dagostino, J.(1990). The learning benefits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12-124.
- Shumaker, S. A., & Taylor, R. B.(1983). Toward a clarification of people-place relationships: A model of attachment to place. In N. R. Feimer & E. S. Geller (Eds), *Environmental Psychology. Directions and perspectives*, New York: Praeger.
- Stedman, R. C.(2002). Up north: A social psychology of place: predicting behavior from place-based cognitions, attitude, and 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4(5), 561-581.
- Stokols, D., & Shumaker, S. A.(1981). People in places: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In J. Harvey (Ed.),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Environment*, Hillsdale, Erlbaum, New Jersey.
- Thoreau, H. D.(1995). *Walden*. An annotated edition. Boston: Houghton-Mifflin. (Original work published 1892).
- Ulrich, R. W., Dimberg, U., & Driver, B. L.(1990). Psychological indicators of leisure conseque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54-166.
- William, D. R., & Roggenbuck, J. W.(1989). Measuring place attachment: Some preliminary results. Paper presented at the NRPA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 San Antonio, TX.

2012년 4월 12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2년 9월 17일 1차 심사완료

2012년 11월 2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2년 11월 3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